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애욕품(愛欲品) ②

夫所以憂悲 부소이우비
世間苦非一 세간고비일
但爲緣愛有 단위연애유
離愛則無憂 이애즉무우

무릇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세간의 괴로움 한두가지 아니나
이는 다만 애욕 있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갈애 여의면 곧 근심 없으리라

已意安棄憂 이의안기우
無愛何有世 무애하유세
不憂不染求 불우불염구
不愛焉得安 불애언득안

근심 버리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갈애 없다면 어찌 세상인들 있으랴
근심하지 않거나 집착해 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편안하리라

有憂以死時 유우이사시
爲致親屬多 위치친속다
涉憂之長塗 섭우지장도

비록 잘라내도 다시 나듯이
애욕도 뿌리채 없애지 않으면
이내 도로 괴로움 받게된다

猿喪得離樹 원후득리수
得脫復趣樹 득탈부취수
衆人亦如是 중인역여시
出獄復入獄 출옥부입옥

원숭이가 나무를 떠났다가도
이내 다시 나무로 돌아가는데
세상 사람도 역시 그와 같아서
감옥에서 벗어났다 다시 들어간다

貪意爲常流 탐의위상류
習與憍慢幷 습여교만병
思想猗婬欲 사상의음욕
自覆無所見 자복무소견

탐욕이 마음속에서 항상 흐르고
교만과 어울려 버릇이 되며
생각은 음욕에 기울어지니
스스로 눈을 가려 볼 수가 없네

一切意流衍 일체의류연
愛結如葛藤 애결여갈등
唯慧分別見 유혜분별견

"도에 뜻을 두어 행하는 이 애욕을 끌어 모으려 하지말라"

愛苦常數危 애고상타위

근심걱정 많았으면 죽을 때에
친한 붙이 많이 모이지만
근심의 긴 수렁 건너는 마당에
사랑의 괴로움 여전하니 악도에 떨어질뿐

爲道行者 위도행자
不與欲會 불여욕회
先誅愛本 선주애본
無所殖根 무소식근
勿如刈草 물여예초
令心復生 영심부생

도에 뜻을 두어 행하는 이
애욕을 끌어 모으려 하지말라
먼저 애욕의 뿌리를 죽이고
다시 싶는 일 없게 하여
마치 풀을 베는것 처럼
다시는 애욕의 마음 나지않게 하라

如樹根深固 여수근심고
雖截猶復生 수절유부생
愛意不盡除 애의부진제
輒當還受苦 첩당환수고

나무뿌리가 깊고 굳세면

能斷意根原 능단의근원

모든 번뇌는 넘쳐 흐르고
애욕의 결박은 칡넝쿨 같아라
오직 지혜만이 이를 가려내
번뇌의 뿌리를 끊을 수 있네

夫從愛潤澤 부종애윤택
思想爲滋曼 사상위자만
愛欲深無底 애욕심무저
老死是用增 노사시용증

무릇 애욕의 달콤한 즐거움 좇으면
생각은 차츰차츰 뻗어 나가서
깊고 깊어져 바닥을 모르나니
늙고 죽는것 이레서 보태진다

所生枝不絶 소생지불절
但用食貪欲 단용식탐욕
養怨益丘塚 양원익병총
愚人常汲汲 우인상급급

소생의 가지는 끊이지 않아
다만 탐욕을 먹고 사는데
원망만 기르고 무덤 더하건만
어리석은 이는 언제나 이일에 급급하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누구에게나 져 주면

법천스님 〈내장사 조실〉



약력
- 1911년 전북 순창 生
- 1928년 내장사 운곡스님을 은사로, 학명스님을 계사로 득도
- 1935년 백양사 대교과 졸업
- 1949년 내장사 주지
- 現 내장사에 주석

"상대를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니 갈등과 싸움 끊이질 않아요 남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느새 내장산 자락은 봄기운이 산내를 휘감고 있습니다. 꽃들이 앞다투어 피고 따스한 햇볕이 삶의 활력이 되기에 충분하건만 나라 안 사정은 IMF다 뭐다 해서 우울한 일 투성이니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날로 자살하는 사람, 좀도둑질을 일삼는 사람, 아이들을 내다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네탓 내탓 시비를 가리기 보다 모두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어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일 뿐이고, 그 마음을 깨달아 무한한 작용을 하게하는 이는 부처입니다. 갖은 시련으로 지쳐 있을지라도 또 다른 노력으로 고난을 극복해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생각하면 기막힌 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1949년 여순반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스님들이 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빨치산들이 들이닥칠까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낮에는 관에서 찾아와 빨치산 흔적을 찾으려고 절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일쑤였습니다. 자연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 버렸지요.

그 와중에 나는 세 번이나 지서에 불려갔었죠.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며 '저 사람'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장 총알이 날라오던, 하늘의 법보다도 무시무시했던 시절, 나는 그 틈에서 용케 살아나왔습니다. 지서에 끌려가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 마을에 덕을 많이 베푼 후덕한 스님이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지요.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 아마도 그 염불 덕에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더러 해 봅니다.

평소 출가 승려로서의 도리를 잊지 않고 살아 온 탓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중생이었던 탓에 내 자의적으로 옳고 그름의 분별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신대로, 은사스님과 할아버지뻘 되는 백학명스님께서 인도해 주신대로 살아 온 덕분입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여러분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거뜬히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몫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충실해 살려고 노력하는 길 밖에 다른 묘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 올해 미수(米壽·88세)입니다. 절집에 들어온지 70년이 넘었지만 요즘도 새벽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저녁 두차례 예불, 사시마지, 참선, 염불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승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는 일은 매우 쉬운 일로 여기기 쉽지만 꾸준히 지켜나가기란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 몫이라 생각하며 지켜온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얼른 져 주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을사람이든 누구든 절에 오거나 거리에서 만나면 그저 '수고하십니다'하고는 지금도 내가 먼저 절을 합니다. 또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도와줄 것이 없나 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늙은이가 먼저 인사하고 하심하니 모두들 어쩔쭐을 몰라 하지요. 그러나 남에게 져주고 하심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도 차별심을 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저 저사람한테 내가 져 주자' 그러면서 마음공부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남한테 져주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할 것이다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한없이 편했습니다. 져주는 것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상대를 이기려고만 드는 세상에는 갈등과 싸움, 고통이 끊이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6·25가 터졌을 때 내장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대중 스님들은 묵묵히 절을 떠났습니다. 나도 절을 나오긴 했지만 멀리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절에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어느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절에 들어와 염불을 하곤 했습니다. 주지로서 가람수호에 대한 책임감이 중할 수 밖에요.

사람은 저마다 심은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법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심지 않고 남이 심은 것을 빼앗으려 해도 안됩니다. 저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법(因果法)이라고 합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고 했습니다. 뿌려야만 거둘 수 있고 더 많이 땀흘려 노력해야만 탐스런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곳에 성공의 꽃이 필 수 없고 행복의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 보람있는 것, 가치있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요 땀의 결과입니다. 노력없이는 지금의 시련을, 고통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허망한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진 자들, 잘 사는 나라 국민이라는 겉멋에 든 사람들이 가득찬 흥청망청, 요지경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행복을 얻으려는 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행복하려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깨달으려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 무소유 보살경 -

1장의 CD에 25시간 분량의 부처님의 무량한 진리를 담았습니다! (세계 최초)

인켈 오디오북 「불경대전집」

● 수록내용: 천수경, 반야심경, 고왕경, 금강경, 화엄경, 산왕경, 부모은중경, 법화경, 지장경, 석가모니불 정근, 관음정진,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화상 발원문, 천지팔양신주경, 신심명, 보현행원품,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약사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성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회심곡, 명상의 말씀 등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이 수록되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 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GOOD DESIGN 통상산업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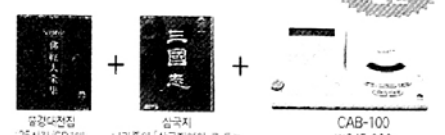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오디오북 플레이어(재생기)

● 듣고 싶은 부분을 바로 찾아 들려주고 몇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인켈이 세계최초로 취득한 첨단 오디오로 일반 CD와 FM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규격 W×D×H 26×18×6.5cm

특별할인판매 40% 할인



불경대전집 25시간 CD1매 ₩70,000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원문 그대로 삼국지로 서적 ₩70,000
CAB-100 ₩345,000

= ~~₩485,000~~ ⇒ 특별할인가 ₩290,000

「불경대전집」과 「삼국지」는 인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 입축기술로 제작되어 오디오북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오디오북 소프트웨어(CD)는 TOEIC 생활영어 비즈니스영어 소설 시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별도판매)

구입 문의
■ 판 매 원 : 아울렛 유통(서울 용산)
■ 문의전화: (02)3274-119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은행계좌 : *국민은행 : 015-21-0955-947 *농협 : 011-01-430541 *조흥은행 : 952-04-132815 *예금주 : 이 종 주

inkel